

기도회 초대장



2021년 5월 23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20-21

퍼스트 스텝스 동역자 여러분,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하여 일하는 기독교 자선 단체입니다. 2021년 5월 23일, 북미 전역의 교회, 단체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방역 조치,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난으로 각종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과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형편과 고통을 잘 아시며, 우리가 축량할 수조차 없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기도제목 및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안내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공동체, 소모임, 가족, 친지 그 외 북한 주민을 위하여 기도할 만한 그 누구라도 이 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북한 주민을 위하여 기도해주실 마음이 있다면, 퍼스트 스텝스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STEPS
preventing child malnutrition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의 날 안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5월 23일, 우리는 겸손히 무릎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판데믹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합쳐져 북한 주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식량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그리고 보호하심이 북한의 병들고 약한 이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판데믹과 그로 인한 여행규제로 인하여 분기마다 진행되던 북한 방문이 중단되어, 현지 상황을 직접 보면서 생산과 유통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으로만 가늠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북한의 한 명 한 명 모두를 돌보시며 한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의 날에 동참하여 기도할 때를 위한 기도제목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질병과 건강

질병, 치료 상 어려움,
물자부족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북한의 어머니와 돌봄자, 아기와 어린이

어리고 연약한 생명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의 건강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평안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일꾼

국경이 다시 열릴 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며, 국경이 열리면
우리가 지혜롭고 결단력 있게
순종할 수 있기를...
(야고보서 5:8)

식량불안

식량불안 및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안전한 식수원이 없는 이들을
위한 기도

성공적인 파종과 풍작을 위한
기도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북한
내 퍼스트 스텝스 파트너들이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붙잡기를...
(로마서 8:25, 로마서
12:12)

노동자

힘든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선적과 물류와 관련된 우려사항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콩우유가 중단되지 않기를...

선적한 대두 및 스프링클스를
하루속히 공급할 수 있기를...

국경이 다시 열리면
퍼스트 스텝스의 대두와
스프링클스가 신속히
북한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지체되는 인도적 지원이
없기를...

콩우유 생산을 위하여 연중
사용되는 퍼스트 스텝스의
바이타 카우 및 바이타 고트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배경 설명

2021년 1월 5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전례없는 위기를 연달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추려보았습니다.

- 2020년 4월에 발표된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1천10만 명(북한 인구의 40%에 해당)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고 식량원조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
- 북한 인구의 39%가 (9백 75만명으로 추산)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원을 보장받지 못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56%의 인구가 식수원에 접근하지 못함 (UN OCHA 2019 Needs and Priorities Report).
- 전체 교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국경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75%가 급감. (월스트리트 저널, 2020년 12월 18일).
- 북한은 COVAX매커니즘 하에 백신 공급을 승인받음. 전체 인구의 약 3.3%인 850,000명 분만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경폐쇄로 인하여 종자, 비료 및 필수물자 부족으로 2021년 작황 또한 위기 상황일 것으로 추측됨.
- 2020년 유례없는 큰 강수량과 세 번의 파괴적인 태풍 피해를 입었음. 2020년 자연 재해들은 2019년에 발생한 재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줌.
- 북한은 2019년 일어난 최악의 자연 재해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뭄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작물 수확량을 절반으로 감소시킴 (NK News, 2021년1월26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